“강제동원 아버지 유해라도 모시게 돼 다행입니다”

80년만에 아버지 故(고)최병연씨 유해 봉환 앞둔 아들 금수씨

49일 된 아들 두고 1942년 타라와 전투에 끌려가 전사
‘타라와 전투’ 희생자 첫 유해 봉환…오늘 영광서 추도식
유족들 “정부,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입장서 다뤄줘야”

“평생을 그리워한 아버지의 유해라도 뵐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일본에 의해 태평양 전쟁에 강제동원돼 80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故(고) 최병연(사망 당시 25세)씨의 차남 금수(82)씨의 울먹임이다.

영광군 홍농면 진덕리가 고향인 최씨는 1942년 11월 25일 남태평양 타라와 섬에 해군 군속으로 강제동원됐다.

최씨는 이듬해 11월 미군과의 전투인 타라와 전투(11월 20~23일)에서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나섰다가 숨졌다. 최씨의 둘째 아들인 금수씨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사통지서’가 전부다. 금수씨가 태어난지 49일만에 강제징집돼 떠난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종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금수씨는 어머니, 첫째 형 향주(지난해 사망, 86)씨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

금수씨는 “어머니가 밤새 베를 짜면 큰아버지가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이었다”면서 “식량이 떨어져 형과 내가 굶주린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집 뒤뜰에서 숨죽여 울던 모습이 가슴에 사무치게 남아있다”고 회상했다.

가난 때문에 금수씨 형은 학교 월사금(月謝金·지금의 수업료)을 내지 못해 2년만에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금수씨도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학업을 중단했다 2년 후 다시 4학년으로 입학해 겨우 졸업했다.

금수씨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군복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꺼내 보며 힘을 얻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어머니가 홀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하는 서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정부에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금수씨는 희망에 들떴다고 한다.

정부가 타라와 전투에서 숨진 한국인 유해와 한국 유족 유전자(DNA)일치 확인 작업 결과 ‘타라와 46번’으로 불리던 유해가 형제의 DNA와 같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 타라와 전투(1942년)

태평양의 관문인 타라와 섬을 놓고 미·일이 벌인 전쟁이다. 일제는 타라와 섬을 요새화하기 위해 수천명의 건설 인력을 동원했다. 소수 일본인 군속과 중국인을 제외하면 동원된 조선인은 1200여명에 달했으며, 대부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처음 아버지와 DNA가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믿기 어려웠다”며 “이후 관련 기관에 재차 확인한 후에야 유해라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웃어보였다.

하지만 금수씨는 “‘살아서 아버지의 유해를 보고 싶다’며 유해 봉환을 적극 추진했던 형이 지난해 겨울 노환으로 타계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는 현재진행형이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며 “약소민들을 데려다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강제징집한 것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당연하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추도식’은 4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추도식 이후 유해는 영광의 가족 선산에 안장된다. 타라와 전투에서 숨진 한국인 1117명 중 한국으로 유해가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이날 추도식 장소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영광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故(고) 최병연씨 차남 최금수씨.

정성택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 선임

정성택〈사진〉 전남대학교 총장이 2024년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 30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협의회는 또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교원양성을 위한 중도이탈 인원 편입학 허용, 연구용 자동차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 대상 제외 요청, 해외 대학과학·석사 등 연계과정 허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성택 총장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40개 국·공립대학의 혁신과 공동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시민 93% “교권 침해 심각”

시의회 교육문화위 조사

광주시민 93%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교권 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3일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광주시민 의견 분석을 통해 교권 침해, 학생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교권 보호 대책과 학생 조례 개정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사회·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50.3%가 ‘매우 그렇다’, 42.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사례 중 가장 큰 문제로는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이 47.7%, 학생들의 폭언과 수업 방해가 40.1%를 차지했다. 교권 침해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 교육 소홀이 32.1%, 학생인권 조례 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치중이 23.6%, 한 자녀 가정 증가로 자녀 과잉보호가 23.4%,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제도 미비 20.4%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시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변호사 등 법률 지원(34.7%), 학생 가정 훈육 등을 위해 격리 조치(29.6%), 학생 보호자 호출 및 귀가 조치(23.1%), 교권 침해 교사 휴식 및 병원 진료 지원(10.7%) 등으로 조사됐다. 또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해 학생이 중징계를 받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91%가 찬성했다. 학생인권 조례 등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광주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고 응답률은 5.45%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백년에 한 번 핀다는 꽃 ‘용설란’ 광주서 활짝

‘대운 깃든다’ 속설에 수험생 부모 등 발길

광주의 한 화원에서 백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용설란〈사진〉 꽃이 피었다. 용설란에 꽃이 피면 대운(大運)이 깃든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어 수험생 부모 등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고 있다.

2일 오후 방문한 광주시 신창동의 ‘초록화원’. 영하에 가까운 날씨 속에서도 20~22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하우스에 들어서자 천장 높이까지 올라간 꽃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화제의 식물 ‘아가베 아테누아타’다. 용설란과의 다육식물로 꽃이 용의 혀를 닮아 ‘용설란’이라고 불리며, 여러 개의 작은 꽃이 피는 꽃대의 모습이 여우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여우꼬리 아가베’라고 불리기도 한다.

재배기간이 10년이 지난 후부터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백년에 한번 꽃이 핀다는 의미로 ‘세기의 꽃’이라고도 부른다. 꽃대 아래쪽부터 개화가 시작돼 점차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꽃을 피운 후에는 생명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신비롭게 여겨진다.

반소은 초록화원 대표는 “지난 9월말부터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꽃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이게 뭘까 의문이 들었었다”며 “한달 만에 1m가 넘게 자라고 2~3주 전부터 꽃대를 중심으로 모여 있던 꽃망울이 옆으로 퍼지더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용설란 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는 물론 대구, 대전, 익산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다만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탓에 용설란을 비롯한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사진 촬영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눈으로만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엄마와 함께 꽃을 보러 왔다는 윤지우 학생은 “내년이면 고3이고 당장 2주 후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며 “전해 내려오는 설이기는 하지만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꽃을 봤으니 기분이 업 되는것 같기도 해 그 행운을 믿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반 대표는 “제가 이 무렵 준비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꽃봉오리가 보이던 때에 맞춰 일이 잘 풀린 걸 보고 정말 꽃기운 덕분인가 생각도 들었다”며 “용설란 꽃의 행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